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4

“우리도 함께 뛰다”

염주 부부 마라톤 클럽

42.195km 사랑의 레이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앞장’

마라톤으로 건강과 가족의 사랑을 함께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 19쌍의 부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주 부부 마라톤 클럽’의 이야기다.

매주 화·목 저녁 회원들은 광주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린다. 옆에서 응원을 보내는 가족이 있어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인 마라톤도 이들에게는 즐거운 운동이다.

‘바른생활’ 19쌍 부부 회원 활동

3·1절 마라톤 대회는 ‘염주 부부 마라톤 클럽’의 한 해를 여는 첫 대회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 봄을 맞이 위해 회원들은 추운 겨울철에도 일 주일에 두 차례 트랙을 돌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천변을 달리면서 실전 감각도 쌓고 있다.

박영수(46) 회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 해의 목표를 점검할 예정이다.

“컨디션 점검차 하프 코스에 출전하지만, 3·1 마라톤 대회 코스는 평소 연습하던 코스인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박창균, 김석수 씨 등 남성 회원 5명이 중심이 됐다. 이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바른 생활 남편’으로 변신하자 마라톤에 무심하던 아내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2년 12월 ‘염주 부부 마라톤 클럽’이 탄생하게 됐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다보니 아이들도 스스로 없이 마라톤에 입문해 온 가족이 함

께 손을 잡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이 클럽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매주 광주천변 달리기 구슬땀

한 가족같이 지내는 회원들이지만 필드에서는 양보없는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는 8명의 여성 회원과 19명의 남성 회원이 참석, 기록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실력도 쟁쟁하다. 2006년 노원섭, 설운화 회원이 100km 울트라 코스를 완주했고, 19명의 남성 회원들 모두 폴코스 완주 경험이 있다. 지난해에는 김광숙, 배수자 두 여성 회원이 42.195km 완주에 성공, 폴코스 멤버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숙(여·44)씨는 “결승선을 들어왔을



‘달리는 부부사랑’을 외치며 건강과 사랑을 키워가는 ‘염주 부부 마라톤 클럽’ 회원들.

때의 기분을 잊지 못한다”며 “인간은 각오를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무이자 김광숙씨의 남편인 조길식(44)씨는 “마라톤을 통해 자신감과 의욕을 찾을 수 있었다. 시즌 첫 대회 열심히 훈련해서 신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울시즌 여성 폴코스자 배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09년 5대 회장으로 클럽을 이끌어가는 오영옥(47) 회장은 시즌 첫 대회인 3·1 마라톤대회에 가는 기대가 높다.

기록 단축에 도전하는 오 회장은 “첫 대회인만큼 회원들이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해 건강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3·1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올 시즌 5명의 여성 폴코스 완주자를 배출하는 것을 클럽 새해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야구 세계챔프 걱정마”

석민이 슬라이더 일품 미·일 강타자 혼쭐 낼 것

KIA 투·타의 핵 윤석민·이용규 WBC 활약 자신



용규형 기동력·선구안 갖춰 미·일 투수 쉽게 공략할 것

베이징 올림픽의 감동을 잊기 위해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24)과 이용규(25)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대표로 나선다. KIA 타이거즈 투·타의 핵 윤석민과 이용규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김인식 WBC 감독의 부름을 받아 오는 3월 또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를 누비게 된다. 두 선수는 한국 야구팀의 질주를 다짐하며 4강을 자신하고 있다.

윤석민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도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과였지 않느냐?”면서 “경험면에서는 1회 대표팀에 비해 부족하지만 훌륭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인 만큼 이번에도 4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규도 “앞선 1회 대회 때 4강 신화를 이루었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면서도 “경기에 나서면 그런 부담감을 잊게 되는 만큼 매 경기 집중해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두 선수가 손뼉을 기다리는 대결 상대는 일본. 한국 대표팀은 1회 WBC 대회 때 일본과의 ‘도쿄대첩’에서 이승엽의 역전 결승 홈런을 내세워 3-2로 승리를 거둔 뒤, 8강에서 다시

한 번 2-1로 일본을 누르고 6전 전승으로 4강에 올랐다. 서재응은 일본전이 열린 미국 애너하임 에인절

스 스타디움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으며, 일본 이치로의 ‘30년 망언’에 일침을 가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예선과 준결승에서 일본을 제물삼아 9전 전승으로 구기종목 사상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윤석민과 이용규는 아직도 일본전 승리가 목마라다. 이번 WBC에서 일본의 콧대를 누르고 아시아 야구 맹주로 확고한 자리를 잡는 게 두 선수의 바람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마운드의 감초와 테이블 세터로 맹활약했던 윤석민과 이용규의 활약은 WBC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민은 “용규형은 기동력은 물론 선구안이 좋고 커트 능력도 뛰어나 상대하기 무척 까다로운 타자다. 어떤 투수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용규는 윤석민에 대해 “최고의 선수다”며 “슬라이더가 일품인데다 구질이 다양하다보니 쉽게 공략할 수 없을 것이다. 구위 자체도 뛰어난데다 컨트롤까지 겸비하고 있어 상대 타자들은 어려운 승부를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로 까다로운 타자와 투수로 평가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든 두 선수는 ‘맞대결 가정(假定)’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윤석민의 이용규 공략법은 ‘흔들기’. 인내심을 가지고 다질질 이용규의 페이스를 흔든 뒤 결정구로 승부를 걸면 맞대결에서 이길 것 같다는 게 윤석민의 생각이다.

이용규의 전략은 ‘몸쪽 공략’과 ‘번트’. 이용규는 “윤석민이 좌타자에 몸쪽 승부를 즐기는 만큼 몸쪽 공을 노리거나 번트 수비의 틈을 파고들겠다.”면서도 맞대결 승리

다고 못는다. 국가대표이기 전에 KIA 대표 선수이기도 한 윤석민과 이용규는 ‘팀 4강’도 이끌어야 한다. 윤석민은 부상 없이 한 해를 보내며 10승 이상을 거두는 게 개인적 목표다. 이용규도 전경기출장에 도전해 팀 4강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화제가 됐던 두 선수는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 야구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영예를 누렸다는 윤석민과 이용규는 다시 한 번 감동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투·포수조 관 전훈 오늘밤 출국

KIA 타이거즈 투수 및 포수조가 16일 광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KIA의 관 전지훈련 투수 및 포수조는 16일 밤 9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광으로 출국한다. 이날 출국하는 선수는 이대진 등 투수 14명, 김상훈 등 포수 4명, 장성호 등 총 19명이다. 코칭스태프로는 조범현 감독과 칸베 토시오 투수 코치와 장재중 배터리 코치가 합류한다.

이들은 광에서 체력훈련을 한 뒤, 2월4일 일본 미야자키로 자리를 옮겨 야수조와 함께 각종 기술 및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야구 랭킹 변동은 국제대회 성적 누락 때문”

대한야구협회는 국제야구연맹(IBAF)이 14일(한국시간) 발표한 첫 세계랭킹에 변동이 생긴 것과 관련, 네덜란드 국제대회의 성적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15일 밝혔다.

야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BAF 포인트 집계 방식에 따르면 2006년과 2008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할렘(Haarlem) 야구대회 성적이 포함돼야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쿠바,미국,일본,네덜란드,중국 등의 성적이 빠졌다”라며 “IBAF가 이를 확인하고 다시 집계해 세계랭킹을 새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BAF는 전날 오전 각종 야구대회에서 각국이 얻은 성적을 토대로 산정한 세계 랭킹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쿠바에 이어 2위로 발표했지만 만일 전날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국에 80점을 더 주면서 한국의 순위를 3위로 변경해 빈축을 샀다./연합뉴스

총재 공백 한달… 표류하는 KBO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총재 공백 상태가 꼭 한 달째를 맞았지만 후임 총재 추대 작업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KBO 이사회는 지난 달 16일 신상우 전 총재가 공식 사퇴의사를 밝힌 직후 유영규 명예의료재단 이사장을 자율 총재로 추대했으나 유 이사장이 정치적인 압력 속에 자진 사퇴하고 나자 재추대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KBO 문제는 문화부와 얽혀 있는 게 없다. 체육단체장은 체육인끼리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말

해 차기 총재 추대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가 간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야구인들은 “원론적 언급”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유영규 이사장이 추대됐을 당시 문화부가 “결처상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 이사장이 자진 사퇴한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한 야구 관계자는 “장관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의 낙점을 받은 인사를 KBO 총재로 추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

사장단은 ‘눈치만’ 문광부는 ‘자율로’ 후임 추대 진척없이 정치권 인사 거론

했다. 총재 추대 권한을 지닌 8개 구단 사장단 역시 잔뜩 움츠러든 자세를 풀 조짐이 없다.

A구단 사장은 “총재 추대 작업을 중단한 것이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아무래도 설 연휴는 지나야 후임 총재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여권에서 KBO 총재로 밀고 있다고 소문이 났던 박종우 전 의원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